

내년 車보험료 3.8% 내외 오른다

금융당국, 제도개선 효과 선반영 주문

애초 인상률 5%서 인하 효과 1.2% 수준

내년 1월 자동차보험료가 3.8% 내외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각 손해보험사에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효과를 내년 보험료 결정에 선반영하라고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인상, 한방 진료 등에 대한 자동

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절차와 기구 신설, 이륜차 보험 본인부담금 신설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제도개선에 따른 보험료 인하는 1.2% 수준일 것으로 추산된다. 애초 보험업계가 제시한 인상률 5%대 전후에서 1.2%를 빼면 3.8% 내외의 인상률이 나온다. 각 보험사는 인상된 요율을 전

산에 반영해 내년 1월 책임개시일이 시작되는 자동차보험에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이들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시기가 아직 드러나지 않아 보험업계 일각에선 제도개선 효과 선반영에 대한 불만을 내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국토교통부와 자동차보험사가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최대 400만원으로 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음주운전 가해자가 내는 사고부담금이 대인 피해 300만원, 대물 피해 100만원 등 최대 400만원에 불과해 음주운전에 지나치게 너그럽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앞서 국토부는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연내 인상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또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를 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된 한방진료비 등의 수가 기준을 만들고 관련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보험업계는 한방 진료비 등의 수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고가인 비급여 위주의 한방진료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오토바이 배달원의 사고를 보장하기 위해 이륜차 보험 본인부담금 신설도 검토 중이다. 배달원이 본인부담금을 내면 보험사는 저렴한 보험료의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 오토바이 배달원의 보험 가입 문턱은 낮추고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부담은 덜 수 있다.

공개 두달여 앞둔 '갤럭시S11' 시리즈...무기는 '트리플 5'?

삼성전자가 내년 2월 샌프란시스코에서 '트리플 5'로 무장한 갤럭시S11시리즈를 공개할 예정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5개의 카메라, 5배 광학줌, 5000mAh(밀리암페어) 배터리' 등을 갖춘 갤럭시S11시리즈를 내놓을 예정이다.

네덜란드 IT매체 '렛츠고디지털' 등 외신은 공개 두달여를 앞두고 속속 예상 이미지를 공개하고 있다. 이미지를 보면 갤럭시S11은 뒷면 왼쪽 상단에 이른바 '인덕션' 모양의 검은색 카메라판을 배치, 5개의 카메라를 탑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추측에 의하면 이 다섯개 카메라는 상위 모델인 갤럭시S11과 갤럭시S11 플러스에 적용되며, △메인 △초광각 △망원 △심도 △접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각각의 렌즈를 탑재한



네덜란드 IT매체 '렛츠고디지털'이 공개한 갤럭시S11 렌더링 이미지. (출처: 렛츠고디지털)

다. 저가 모델인 갤럭시S11e에는 '심도'와 '접사' 렌즈가 빠진 트리플 카메라가 탑재될 것 이란 예상이다.

화면 크기는 갤럭시S11e가 16cm(6.3인치), 갤럭시S11이 17.01cm(6.7인치), 갤럭시S11 플러스가 17.52cm(6.9인치)로 예상되며, 전면 가운데 상단에 카메라 홀란 남겨둔 '인피니티-O 디스플레이'가 적용된다.



홈플러스 "연말 홈파티 저렴하게 준비하세요" 19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모델들이 홈 파티 먹거리를 선보이고 있다. 홈플러스는 오는 25일까지 전국 점포 및 온라인몰에서 온 가족이 즐기는 크리스마스 및 연말 홈파티를 위한 특별 기획전을 진행한다.

앞으로 전화로 보험가입 때 '기계적' 설명 안 듣는다

금융위,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곧바로 시행"

보험가입자가 전화로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사는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문자메시지·이메일 등으로 전달할 수 있다. 보험가입자가 중요도와 관계없이 기계적 설명을 오랜 시간 들어야 하는 불편을 없애 전달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을 의결했다. 지난 5월 금융위는 보험분야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해 규제 23건을 연내 개선하기

로 결정했다. 이에 지난 10월 16건에 이어 이번에 나머지 7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보험가입자는 전화로 보험에 가입할 때 중요도가 떨어지는 사안을 문자메시지·이메일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보험가입자가 동의하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으로 알리고 이를 계약 체결 전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동안 보험설계사는 표준상품 설명대본에 따라 관련 내용을 설명

했는데, 중요도를 고려하지 않아 전달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사 등이 15% 이상 출자한 법인은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특정 상품 판매와 서비스 제공을 본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본업과 관련 있는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손해보험대리점이다.

다만 금융위는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일명 '쪼갠'을 금지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영업 기준에 담을 계획이다.

보험사 자산운용 규제도 완화한다. 우선 보험사의 외화증권 대어

거래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보험사가 외화증권 대어거래를 할 수 있는 규정상 근거가 없다.

또 변액보험 보증위험을 없애기 위한 파생상품 거래의 일일정산금 납입 목적이면 사채발행한도 내에서 RP매도가 허용된다. 지금은 변액보험 보증위험을 없애기 위한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에도 RP매도가 금지돼 현금을 보유해야 했다.

변액보험 보증위험은 보험금이 자산운용 성과에 따라 변하는 변액보험에 대해 보험사가 최저시망 보험금, 최저연금적립금을 보장하기 위해 부담하는 리스크다.

금융위는 "오늘 의결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신속히 공고해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순백의 눈' 입은 '갤노트10 5G' 오늘 예판

내달 3일 출시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10 5G 신규 색상으로 겨울에 내리는 '순백의 눈'을 표현한 '아우라 화이트' 모델을 새롭게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모델은 오는 20일부터 삼성 전자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예약판매를 시작하며 오는 2020년 1월3일 오프라인에도 공식 출시된다. 삼성전자 홈페이지, 전국 디지



매된다. 가격은 기존과 동일하게 124만8500원이다.

털프라자, 각 이동통신사 매장, 하이마트, 전자랜드 등에서 공식 출시되며 이동통신 3사와 자급제용으로 모두 판매된다.

빙그레, '뉴트로' 감성 담았다

바나나맛우유 특별판 선보

빙그레는 뉴트로 감성을 입힌 바나나맛우유 특별판을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패키지는 올해 유행하는 뉴트로를 담았다. 겨울 감성이 느껴지는 색채와 귀여운 얼굴 모양이 들어간 디자인을 적용했다.

특히 과거 로고와 문구를 넣어 기성 세대에게 추억을 전달한다. 젊은 세대로 신선함을 느낄 것으



로 빙그레는 기대했다. 빙그레 관계자는 "바나나맛우유는 소비자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 대한민국! **미래로**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